

광주, 상승세 몰아 연승 'Go~ Go~'

오늘 저녁 홈에서 수원FC전
인천전 '역전승 기운' 연장 의지
12승4무5패 상대 전적도 압도
김호영 감독 "인천-수원-성남
팀 방향 결정할 중요한 경기"



전용구장 '첫승' 갑증을
푼 광주FC가 시즌 첫 연승
에 도전한다.

광주는 7일 오후 7시 30
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
수원FC를 상대로 K리그
1 2021 8라운드 홈 경기를 벌인다.

광주는 승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안방에서
연승을 노린다.

지난 7라운드 광주축구전용구장은 '광주 극
장'이었다.

전반 추가 시간에 '막내' 엄지성이 동점골을
터트렸고, 경기 종료 직전에는 이희균이 극적
인 버저비터골을 만들며 2-1 역전승을 만들었
다. 지난해 7월 문을 연 전용구장에서 기록된
광주의 첫 승리였다.

특히 광주의 미래인 엄지성과 이희균이 나란
히 프로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
되었던 만큼 더 의미 있는 승리가 됐다.

10경기 만에 전용구장 '첫승' 목표를 달성한
광주에는 연승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주어졌
다.

김호영 감독은 "인천-수원FC-성남FC로 이
어지는 3연전은 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
요한 경기다. 첫 단추를 잘 끼어 만큼 좋은 결과
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"고 수원FC와의 경
기 중요성을 강조했다.

광주는 앞선 인천전을 통해 승점을 더한 것
은 물론 전력 운영의 폭을 넓혔다.

A매치 휴식을 보내며 에너지 재충전을 끝
낸 광주는 앞선 경기에서 새로운 선수들을 데
거 투입해 손발을 맞췄다.

부상에서 벗어난 이한샘이 9년 만에 친정 북



지난 4일 인천과의 7라운드 홈경기에서 광주전용구장 첫승을 기록한 광주가 상승세를 이어 7일 수원FC를 상대로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한다. 사진은 인천전에서 이희균(왼쪽에서 4번째)의 극적인 버저비터골이 나온 뒤 기뻐하는 광주 선수들. <광주FC 제공>

귀전을 치렀고, 결승골을 넣은 이희균에게도
올 시즌 첫 경기였다.

마지막 교체 카드로 투입된 정현우에게도 이
날은 시즌 첫 출전날이었다. 여기에 새로운 외
국인 선수들도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렀다.

세르비아 국가대표인 수비수 알렉스는 압도
적인 공중볼 싸움 실력은 물론 정확한 롱패스
를 바탕으로 빠르게 공수를 전환시키며, 빌드
업 실력도 보여줬다.

브라질 특급 헤이스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
으로 날카로운 키패스를 선보이면서 팀 공격을
주도했다.

엄원상과 김중우, 이찬동 등 시즌 초반 싸움
을 이끌어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지
만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
유다.

이번 경기는 2년 만에 펼쳐지는 맞대결이다.
수원FC가 올 시즌 승격에 성공하면서, 우승
팀 자격으로 먼저 K리그1에 복귀한 광주와 2
년만의 맞대결이 성사됐다.

더 뜨거운 무대에서 더 강해진 두 팀이 만나
게 된다.

광주는 지난 시즌 팀 창단 후 첫 파이널 A에
성공하면서 K리그1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.

수원FC도 K리그1 무대를 위해 박주호, 박
지수, 정동호, 양동현, 이영재, 김승준 등 국가
대표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다.

또 지난 라운드 제주전에서 2-1로 시즌 첫 승
을 거두며 분위기도 올라갔다.

상승세를 탄 두 팀의 대결, 광주는 좋은 기억
을 앞세워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.

광주는 역대전적에서 수원FC에 12승 4무 5
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. K리그1 맞대
결에서도 2승 1무 1패(2016시즌)를 기록하며
앞서 있다.

짜임새 있는 수비와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, 화
끈한 공격을 내세운 광주가 수원FC를 잡고 홈
에서 시즌 첫 연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눈길이
쏠린다.

/김여울 기자 wool@kwangju.co.kr

'프로 데뷔골' 광주FC 엄지성 '베스트 11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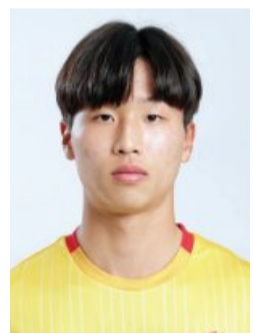
K리그1 7라운드

프로 데뷔골을 넣은 광주FC의 '특급 루키' 엄
지성이 생애 첫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.

엄지성은 6일 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K리그
1 2021 7라운드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에서 바
로우-최영준(이상 전북), 윤빛가람(울산)과 어깨
를 나란히 했다.

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첫 선발 출장
한 엄지성은 0-1로 뒤진 전반 추가시간에 오른발
슈팅으로 동점골을 장식했다. 이는 7경기 출전 만
에 기록된 프로 데뷔골이기도 했다.

'막내'의 반격에 힘을 얻은 광주는 후반 종료 직
전 타진 이희균의 '극장골'에 합입어 2-1 역전승
을 연출, 10경기 만에 광주 전용구장 첫 승을 신고
했다. 한편 7라운드 MVP는 1골 1도움의 활약을
선보인 전북 일류첸코에게 돌아갔다.



◇K리그1 7라운드 베스트11

▲FW : 일류첸코(전북) 라스(수원FC) ▲MF : 엄지성(광주) 바로우-최영준(이상 전북), 윤빛가람(울산) ▲DF : 최철순-최보경(이상 전북) 조유민(수원FC), 김수범(강원) ▲GK : 최영은(대구) ▲베스트 팀 : 전북 ▲베스트 매치 : 수원-전북 / 김여울 기자 wool@kwangju.co.kr

김현수 '고척 승리의 기억' 소환한다

오늘 KIA-키움전 선발 등판
지난 가을 브룩스 공백 때 첫 선발승
'강척' NC 경기 전 중요 변곡점
결과따라 초반 팀 분위기 좌우

KIA 타이거즈 김현수가 고척에서 팀의 명운을
쥐고 마운드에 오른다.

고척은 지난해 선발 투수로서 전환점이 됐던 곳
이다.

캠 내내 마운드 구성을 고심했던 윌리엄스 감독
은 이민우 대신 김현수를 전면에 배치하며
2021시즌 선발진을 꾸렸다.

그리고 선발 경쟁에서 1차 승자가 된 김현수는
7일 잊지 못할 기억이 남아있는 고척에서 시즌 첫
선발 등판을 하게 된다.

김현수의 운명의 순간은 지난해 10월 1일로 거
슬러 간다.

브룩스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선발 기회를 얻
은 김현수가 고척에서 '난세의 영웅'이 됐다.

이날 키움을 상대로 선발 데뷔전을 치른 김현수
는 5이닝 무실점의 '깜짝 호투'를 펼치면서 3-1 승
리의 주역이 됐다.

김현수는 기대하지 않았던 호투로 선발 데뷔전
에서 승리투수가 됐고, 팀의 키움전 스윙을 완성
했다. 이 승리와 함께 김현수의 2020년 가을은 물
론 2021시즌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.

지난해 안치홍의 FA보상선수로 KIA 유니폼을
입었던 김현수는 불펜 투수로 아쉬운 모습들을 잇
달아 노출하면서 군입대를 고려했었다. 하지만 키
움전에서 선발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'잔류'로
계획이 수정됐다.

새로운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 시즌 선발
경쟁에 뛰어든 김현수는 많은 이의 예상을 깨고
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키움을 상대로 2021
시즌 '첫승' 사냥에 나서게 됐다.

김현수는 기본 좋은 기억을 살려 팀의 운명을
바꿔야 한다.

KIA는 지난해 김현수의 선발승과 함께 4연승
을 달리며 두산을 따돌리고 단독 5위로 올라섰
다. 이어 두산과의 맞대결이 예정됐던 만큼 KIA

의 5강에도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.

하지만 KIA는 김현수의 승리 기세를 잊지 못하
고 두산에 싸움이 3연패를 당하면서 사실상 5강
싸움에서 탈락했었다.

KIA는 개막전에서 만난 두산을 상대로 열세를
극복하지 못하고 2021시즌을 1-4 역전패로 열었다.

키움과 NC를 잇달아 만나게 되는 이번 주,
KIA는 중요한 선발진 테스트를 진행한다. 강팀들
과 일전이 이어지는 만큼 선발진의 성격에 따라
초반 흐름이 좌우된다.

김현수 개인은 물론 다음 경기를 위해서도 중요
한 등판이다. 8일 이의리가 선발 바통을 이어받게
된 만큼 프로데뷔전에 나서는 '막내'의 어깨를 가
볍게 해주기 위해 김현수가 최대한 많은 이닝을
소화하면서 분위기 싸움을 해줘야 한다.

김현수는 캠 내내 브룩스를 그림자처럼 따라
다녔다. '특급 과의 선생'을 자처한 브룩스에게
많은 것을 묻고, 들으면서 마운드 밖에서도 선발
준비를 이어갔다. 선발 경쟁에서 생존한 김현수가
운명의 고척에서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될 수 있을
지 주목된다. /김여울 기자 wool@



김현수

웹툰 '익투'가 전하는 KIA 소식

구단 홈페이지·카카오 Iboon 등 게재
경기 분석·각종 에피소드 등 담아

'호랑이 군단'의 소식을 웹툰으로 만난다.

KIA타이거즈가 웹툰 '익투의 기아스토리
2021'을 통해 선수들, 경기, 구단 소식 등을 전한
다.

주간 경기 분석, 각종 에피소드, 이벤트 소식 등
이 담긴 '익투의 기아스토리 2021'은 지난해 29일

첫 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구단 홈페이지와
앱, 카카오 Iboon, 다음스포츠 카툰란을 통해서
확인할 수 있다.

김익수 스포츠 웹툰 작가가 그림과 글을 맡은
'익투의 기아스토리'는 지난해 9월 처음 선보여
팬들의 호응을 얻었다.

KIA 설진규 마케팅팀장은 "다양한 온라인 콘텐
츠로 팬과 소통하기 위해 올 시즌에도 웹툰을 연
재한다"며 "웹툰을 통해 색다른 관점의 경기 분석
과 에피소드를 전달해 팬 여러분께 즐거움을 안겨



드릴 것"이라고 말했다.

/김여울 기자 wool@kwangju.co.kr